

2026.2.20.(금)

청년이 살 수 있는 용인, 청년 주거 토크
[토론회 결과 보고서]

용인특례시의원 이상욱

1 개요

- 행사명: 청년이 살 수 있는 용인, 청년 주거 토크
- 개최일시: 2026년 2월 20일(금) 10:00~12:00 (2시간)
- 개최장소: 용인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 최: 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자치행정위원회)
- 참석자: 총 13명
 - 유진선 의장, 이상욱 의원, 이윤미 의원, 더함 부대표 김종빈, 청년대표 최홍서, 학부모 대표 이정미 및 용인시민 7명 등

2 목적

- 청년 주거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회주택 등 다양한 주거 방식과 주거사다리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 용인시의 지역 여건과 도시 구조를 고려하여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주거 부담의 현실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청년 주거 정책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향후 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용인시 관내 청년 주거와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공유
-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용인시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공유
- 용인시 청년 주거 정책의 향후 논의를 위한 의견 정리 등

4

회의록

일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2월 20일(금) 10:00~12:00 (2시간) ○ 용인시의회 4층 대회의실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자 및 토론자: 김종빈(발제), 최홍서, 이정미 ○ 참석자: 유진선, 이상욱, 이윤미 의원 및 용인시민 7명 등
토론 진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형 아파트 사회주택 사례 소개 - 단순 임대료 지원이 아닌 공동체 기반 장기 거주 모델 필요성 제시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거 정책 방향 제안 ○ 정책 제언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형 아파트 사회주택 모델인 ‘위스테인’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 주거 정책이 단순한 임대료 지원이나 단기적 공급 확대에 그칠 경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함. 토지 확보 방식, 입주자 참여 구조, 공동체 기반 운영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또한 공공·민간·시민 참여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성을 제시함 - 청년을 둔 학부모 대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임대료와 전월세 불안정 문제가 청년 세대의 자립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혼·출산·지역 정착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언급함.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중간 단계형 주거 모델과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함 - 청년 대표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공급 규모의 현실성, 입지의 생활 편의성, 교통 접근성, 신청 기준의 공정성 등 구체적 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제도 도입 이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기 위한 세부 설계의 중요성을 언급함 - 참석자들은 청년 주거 정책이 물량 중심의 공급 확대를 넘어, 일자리·교통·생활 인프라와 연계된 종합적인 도시 전략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정책 정보 접근

성 제고와 대상자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함
 - 죽전 물류센터와 같은 대규모 시설 계획에 대해서도 향후 도시 기능과 공간 활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그 밖의 사항

비 고

